

창립 50주년 SK이노베이션, '글로벌 종합에너지·화학기업' 도약 선언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멈추지 않는 innovation의 새로운 출발점

2012년 SK이노베이션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2년 10월 13일 울산의 작은 여촌에서 대한석유공사로 시작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국가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에 발맞춰 왔습니다. 경제자립과 근대화의 의지를 불태우던 시절부터 국내 에너지 업계 1위를 기록하기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크고 작은 역경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해온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개발과 석유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Technology-driven Innovative Company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국내 1위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Global 성장에 박차를 가해 2020년까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Technology-driven Innovative Company로 성장, 명실상부한 Global Top-tier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석유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해 경제성 높은 광구 확보와 지속적인 기술개발,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Global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배터리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사업과 더불어 첨단 신소재사업에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직적으로는 사람과 문화혁신을 강화할 것입니다. 도전, 창의, 긍정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Global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따로 또 같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4개사의 통합 Value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계 대표 에너지 수출기업으로 부상

SK이노베이션은 “유전이 없는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고(故) 최중현 SK그룹 회장의 강한 의지를 담아 해외유전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꿈은 1984년 7월, 예멘 마리브 광구 알리프(Alif) 제1유전에서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탐사 시추가 없었던 이른바 ‘와일드 캣’으로 불리는 처녀지에서 이루어진 SK이노베이션의 과감한 도전은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당초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로 돌아왔으며, 이는 규모나 수입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국내 최초로 성공을 거둔 해외 유전 개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매장량 10억 배럴의 자이언트급 마리브 유전은 1980년대 세계 3대 유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2000년대 들어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석유제품 수출을 강화, 수출국가 수를 기존 10개국 이하에서 30여 개 국가로 확대하고, 아시아권에서 미국·유럽·호주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대상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온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정유시설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화학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 무자원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키고 최고수준의 기술력으로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Pride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이루는 기술

전기에너지로 자동차를 달리게 만든 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꿈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뒤늦게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09년 님블러 그룹 미쓰비시후소사의 하이브리드 트럭 프로젝트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선두업체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 순수고속전기차인 현대자동차의 ‘블루온’과 기아자동차의 ‘레이’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2012년 7월에 세계적인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사와 협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 배터리는 전극과 분리막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셀과 팩 기술 등 배터리 전 과정에서 고유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출력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리튬이온배터리 핵심소재 중 하나인 리튬이온분리막 (LIBS)를 비롯해 광학필름 (TAC), 연성회로기판소재 (FCCL) 등 정보전자 소재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영토 확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그린에너지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개발 중인 무공해 석탄에너지기술인 그린콜은 값싼 저급석탄을 원료로 사용해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며, 촉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그린폴 기술의 상업화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꿈을 현실로 만든 LIBS, TAC필름, FCCL 첨단소재와 고성능 폴리머 제품인 넥셀렌, 그리고 그린폴, 그린콜 등 친환경 소재 개발로 미래에너지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윤리·행복경영을 구현하는 기업

SK이노베이션은 2004년 1월 이사회의 투명경영·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선안도 발표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사적인 윤리규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지배구조 개선노력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아, 2005년 2월 아시아머니가 실시한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 아시아 1위 기업 선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11년 ‘투명경영 대상’을 통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행복경영을 통한 구성원·고객·주주·사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즐겁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기업문화인 ‘도전·창의·긍정’이념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행복경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행복경영을 위한 노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2012년,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최우수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2년 가족친화기업 선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행복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행복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